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지정테마1팀

1주차	일시	4월 9일 12 : 00 공학관 세미나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철(2071166)	O
		하호철(2551021)	O
		현준혁(2091216)	O
		홍준섭(2031272)	O
	진도	도서명: 죽음의 수용소에서	진도페이지: 1p. ~ 120p.
	토론 내용	[좌측부터 현준혁, 하호철, 홍준섭, 김민철] [토론 주제 1] 저자는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준섭: 저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수용소 밖의 전기 철조망에 뛰어들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마찬가지로 나는 다른 수감 인원과 함께 묵묵히 삶을 이어나갈 것이다. 호철: 연인, 가족, 친구들이 몰살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굴복하기보단 반항을 해볼 것 같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끌고 다 함께 부딪혀볼 것이다. 준혁: 수용소에 갇힌 이상 온갖 고통을 인내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군대에서의 경험과 같이 언젠가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묵묵히 버텨낼 것이다. 민철: 혼자서는 저런 가혹한 상황을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언젠가 해방될 것이라 믿으며 다른 동료들과 함께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며 버텨볼 것 같다. [토론 주제 2] 저자는 의미 부여를 통해 시련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상황을 통해 어떤 가치를 느껴보았나. 호철: 시험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큰 절망감을 느꼈다. 나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 로고테라피를 적용시켜보았고 당시 느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민철: 내 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어려워 보이는 전공을 듣는 것에 주저했고 실제로 수강하는 과정 중에 어렵고 지치는 일이 많았으나 결국 큰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고 자신감이 붙는 계기가 되었다. 준혁: 저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았다. 나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기보단 지금 해야 하는 일에 더 집중할 것 같다. 준섭: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생긴다. 나는 과거의 시련으로부터 얻은 것을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해 볼 것이다.
--	--	---

2주차	일시	4월 16일 12 : 00 비대면 ZOOM 회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철(2071166)	O
		하호철(2551021)	O
		현준혁(2091216)	O
		홍준섭(2031272)	O
	진도	도서명: 죽음의 수용소에서	진도페이지: 1p. ~ 190p.
	토론 내용	[위부터 하호철, 김민철, 홍준섭, 현준혁] [토론 주제 1]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선택할 자유를 지닐 수 있는가? /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가능할까?> 내용: 프랭클은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호철: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최소한 자신의 태도나 마음가짐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지만,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김민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운동가처럼은 어렵지만, 일정 부분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준혁: 극한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사고에만 기대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 오히려 내 자유를 억압할 것 같습니다.

홍준섭: 극한의 정도가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 몰리게 된다면 꿈도 희망도 다 잃고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자유를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 2]

<고통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내용: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고통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수용소에서 사랑, 신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삶의 의미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하호철: 고통은 분명히 힘들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힘든 경험을 통해 성장하거나 가치관이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김민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가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딘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재 나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해방의 징조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준혁: 고통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는 것에는 회의적인 의견입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모두를 겪으며 자신의 삶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계속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왔습니다.

홍준섭: 고통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현재 내가 겪는 고통은 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주제 3]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인가, 창조하는 것인가?>

내용: 후반부, 로고테라피 부분에서 '의미'는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됩니다.

		하호철: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는 단순히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경험과 상황 속에서 점차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경험이 내게 어떤 가치를 줬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미는 주관적으로 찾아가는 것이지, 무에서 창조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삶의 의미는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사람들은 성공이 삶의 의미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르기에, 개인의 삶의 의미 및 가치관은 모두 다르다. 결국 만들어내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현준혁: 삶의 의미이자 가치는 ‘창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발견이라고 한다면, 이미 존재하던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개인적인 삶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가치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가치는 인간관계 및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섭: 삶의 의미는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 자체를 정하는 것은 생각을 토대로 나옵니다. 생각은 각자의 경험에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

3주차	일시	4월 30일 12 : 00 연구관 814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철(2071166)	O
		하호철(2551021)	O
		현준혁(2091216)	O
		홍준섭(2031272)	O
	진도	도서명: 죽음의 수용소에서	진도페이지: 1p. ~ 190p.
	토론 내용	[좌측부터 나은미 교수님, 하호철, 현준혁, 홍준섭, 김민철]	

담당 교수님과 대면 토론

주요 토론 주제: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점적인 고찰

나은미 교수님: 삶의 의미는 결국 행복을 찾는 과정이다.

행복은 현재 나를 만족시키는 즐거움과 미래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행복은 현재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고 미래, 즉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이론처럼 이전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 결국 현재의 생리적, 안정적, 존중적인 욕구를 채워야 다음 단계인 자아실현의 최종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이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어떤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출발한 행위로 인한 결과는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닌, 타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셈.

만약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타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면 자신의 행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하호철: 삶의 의미란 관계에서 형성되는 '나'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감으로써, 책임질 것이 늘어남으로써, 나의 희생으로 타인을 구원하거나 타인이 나를 구원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음으로써 내가 형성되고 나라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관계라는 것이 코로나 시기 이후로부터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이 사라져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쾌락이지 의미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본인은 현재 타인을 도와주고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본인을 인정하고 나라는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결국 삶의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교수님의 첨언으로, 인간은 사회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소속되며 안정감을 느낌.

최근의 소속감은 가시적으로는 많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소속감의 밀도는 매우 떨어짐. 이 때문에 소속되어 있지만, 외로운 상황이 발생.

이는 소속감이 만족되지 않으며, 명예 욕구도 생기지 않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이론을 기반으로, 의식주의 기본 욕구를 만족해도, 그 이상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함.

현준혁: 삶의 의미는 평생 고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다른 점은 생각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동물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지만,

인간은 의식주 외에도 고뇌를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교수님의 첨언으로, 모든 삶은 행복한 삶에 향하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고민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홍준섭: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남기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미래 몇백년 뒤의 자손이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남기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자신이 자기 조상을 생각할 때, ‘나는 이런 피(혈연 등)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자기 후손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을 쓰는 등의 행위도 삶의 의미라고 생각함. 김민철: 삶의 의미는 그 자체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외조부의 사례를 들며, 남들이 보기에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힘든 상황에서도 중간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삶을 유지한 것을 보면, 삶의 의미란 원동력인 것 같다. 요즘은 물질적 풍요가 있기에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교수님의 첨언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북유럽에서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는 모순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삶의 의미로 행복을 들었는데,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총합이라고 정의한 사례를 알려주셨다. 즐거움(쾌)는 현재를 이끄는 동력이며, 의미는 미래의 자양분이다. 현재의 즐거움이 미래의 어떤 동력으로 이어져야 함.
--	--	--

4주차	일시	5월 7일 12 : 00 연구관 814호, 비대면 ZOOM 회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철(2071166)	O
		하호철(2551021)	O
		현준혁(2091216)	O
		홍준섭(2031272)	O
	진도	도서명: 죽음의 수용소에서	진도페이지: 1p. ~ 190p.
	토론 내용	 	

[좌측부터 나은미 교수님, 홍준섭, 하호철]

[좌측부터 홍준섭, 현준혁, 김민철, 하호철]

[토론 주제 1]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문장

하호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입니다. 극한의 수용소 환경에서도 인간이 자기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김민철: 나는 책에서 저자가 의미 부여를 통해 시련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의미 부여를 통해 시련 속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견디고 시련을 넘어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에도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시련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것이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든 간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시련이라도 이를 버티고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준혁: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자인 빅토르 프랭클이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서술하는 초반 부분 그 자체가 인상 깊었다. 그런 비극적이고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장소에서 타인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고찰을 이어가는 것이 상당한 정신력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에서 저자가 남을 분석하며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사실 저자 본인이 시련을 겪으며 삶의 의미 등을 찾으며 남에게도 확장하여 정의한 것 같다.

[토론 주제 2]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낀 점

하호철: 책을 읽으며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을 견디며 저자가 보여준 태도와 성찰은 내 삶을 돌아보게 했고, 어떤 환경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느꼈습니다.

김민철: 이 책에는 글쓴이가 경험했던 수용소에서의 삶이 적혀있다. 저자가 그 극한의 상황에서 보고 들었던 온갖 끔찍한 광경과 그 속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 및 무력감, 이 과정 속에서 변하는 작가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고 반대로 그가 그런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그의 태도와 선택을 엿볼 수 있었다. 저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마주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현준혁: 나은미 교수님과의 토론 및 대화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며 책의 내용을 되짚어보니, 책의 어느 부분에서나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찾는지, 어디서 찾는지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내는 그 자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나도 책의 저자처럼 앞으로 어떤 힘든 상황을 마주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삶의 의미를 찾아보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	--	---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김민철 (2071166)	평상시에 책을 잘 읽지 않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조원들끼리 책을 읽고 나서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원들마다 관심 있는 주제가 다르고 각자 지내온 경험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욱 흥미로웠다. 앞으로도 비슷한 활동에 자주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다른 유익한 책들을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하호철 (2551021)	독서 모임에서 각자 느낀 점을 나누며,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남은 인간의 자유와 선택에 대한 논의가 인상 깊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책의 메시지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3	현준혁 (2091216)	평소 이런 인문학 계열의 책을 잘 읽지 않아서 모르고 있던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점이나,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 클럽 활동이 의미 있었던 것 같다. 하나의 책과 그에 대한 주제로 여럿의 의견을 모으고, 교수님의 도움으로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인문학 서적이 아닌 다른 책을 주제로 한 독서 클럽도 참여해 보고 싶다.
	4	홍준섭 (2031272)	먼저 이번 독서클럽이 3번째 독서클럽인데 개인적으로 활동, 토론 등 다방면으로 제일 만족스러운 독서클럽이었던 것 같다. 평소에 알고는 있었지만 읽지 못하였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고 팀원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은미 교수님께서 클럽 활동을 하면서 편안한 장소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등 편안한 토론의 장이 열렸던 것 같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는 것이 점차 뒷전이 되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책의 중요성과 흥미가 생기게 되었다.